

트렌드를 캐치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?

제법 나이 많은 나에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트렌드에 그리 밝냐고 묻곤 한다. 글썄, 나도 잘 모르겠는데, 하여간 내가 하는 몇 가지 방식은 이래.

우선 잡지를 많이 봐. 세상에 앞서가는 걸 다 모아놓은 게 잡지잖아? 간접경험을 가장 폭넓게 하는 방법이 잡지를 읽는 것 같아.

뛰어난 경영자 중에는 밖에 나다니지 않고 은둔하듯 사는 분들이 적지 않아. 사교하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에 집중하려는 거지. 내가 만나본 경영자 중에는 오리온의 이화경 부회장이나 엘지생건의 차석용 부회장이 그러서. 신기한 건 그렇게 은둔하는데도 세상의 흐름을 아주 잘 파악하시거든. 그분들의 공통점 하나가 잡지를 많이 보시는 거더라. 사람들을 덜 만나는 대신 잡지를 살살이 읽는 거야.

차 부회장께 여성 고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잡지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여쭙니 〈코스모폴리탄〉을 말씀하셨어. 그때부터 나도 〈코스모폴리탄〉을 구독하는데, 요즘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관심사를 잘 보여주더라고. 아무래도 싱글 라이프에 관한 얘기가 많고, 커리어에 대해서도 뻔한 얘기가 아니라 에디터와 기자들의 생각을 진솔하게 담아내더라. 에디터의 체험을 담은 기사도 흥미로워. 독자들이 ‘독립적 삶과 각자의 미래’를 궁금해할 것이라 간파한 거겠지.

또 우먼파워를 담백하게 대변하고, 뷰티에 대해서도 날씬하고 예쁜 것만 추종하는 게 아니라 뚱뚱하건 말랐건,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친근하게 설명해줘. 섹스 라이프에 대해서는 노골적인데, 거북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편하게 읽히더라고. 셀럽에 대한 기사도 꽤 깊이 있어서 삶을 벤치마킹할